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특별전 광복 70년 기념전...103년 만에 강원도로 돌아온 조선왕조실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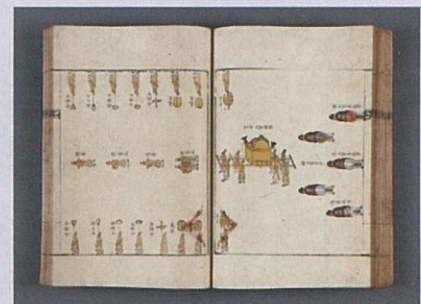
강원도(도지사 최문순)가 주최하고 강릉시(시장 최명희)가 주관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의궤 특별전'이 8월 6일부터 31일까지 강릉 오죽헌·시립박물관에서 열렸다. 이번 특별전은 광복 70년을 맞아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의 후원으로 진행됐다.

글 | 임남숙 기자 sang@print.or.kr 사진제공 | 오죽헌·시립박물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오대산 사고(사적 제37호)는 임진왜란 이후 건립된 조선 후기 4대 사고 중 하나다. 오대산 사고에 보관 중이던 실록과 의궤는 1913년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반출돼 1927년 관동대지진으로 대부분 유실됐고 일부인 27책은 1932년 동경대에서 경성제국대(서울대 전신)로 이관됐다. 이후 나머지 47책은 2006년 7월 환수돼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보관 중이다. 의궤 역시 일제강점기에 반출돼 일본 궁내청에서 보관되다 2011년 12월 환수돼 현재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이처럼 2006년(실록)과 2011년(의궤)의 문화재 한국은 월정사(주지:퇴우 정념)와 민간단체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문화재는 천에 싸인 채 고향인 평창 오대산 사고에서 '고유제'만 치르고 서울로 옮겨졌다. 이에 강원도에서는 실록과 의궤를 되찾기 위한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조선왕조실록은 기록문화의 정수”
8월 6일 열린 전시회 개막식에는 나선화 문화재청장, 최명희 강릉시장, 정념 월정사 주지



고종 대례의궤

를 비롯해 염동열 국회의원, 맹성규 경제부지사, 심재국 평창군수를 비롯한 각급 기관·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이날 개막 행사에서 나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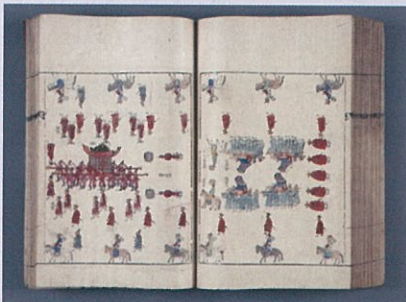
화 문화재청장은 “조선왕조실록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인류가 보존해야 할 기록문화의 정수”라며 “실록과 의궤가 품고 있는 문화자산으로서의 가치와 민족적 자긍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미래 문명을 보다 풍요롭게 가꾸는 자산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명희 강릉시장은 “일제가 수탈해 간 소중한 우리의 역사 문화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오대산 사고 소재지인 강원도, 그 중에서도 강릉에서 첫 선을 보여 감개무량하다”며 “광복 70주년을 맞은 올해를 기점으로 귀중한 문헌들이 원래의 자리인 오대산으로 완전히 돌아와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년 월정사 주지는 일제 강점기 때 주문진항을 통해 일본으로 수탈된 오대산 사고본이 환수되기까지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오늘 오대산 사고본의 고향인 강원도에서 열리는 특별전을 계기로 민족의 얼이기도 하고 우리의 역사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더욱 잘 보존하기 위한 의지를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실록 10책·의궤 40책 등 전시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특별전’은 ▲황제책봉 ▲어진제작 ▲왕실장례 ▲왕실책



▲▲고종명성후 가례도감의궤 ▲국장도감의궤



조선 제9대 성종대왕 재위 25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성종대왕실록’

봉 ▲왕실건물 ▲왕실추존 ▲왕실혼례 ▲왕조실록 등의 주제로 꾸며졌으며, 1897년 대한제국 선포와 관련된 황제 즉위식과 황후·황태자 책봉, 각종 의장물과 어책·어보 제작 등에 관한 기록이 실린 ‘고종대례의궤’를 포함한 의궤 40책과 조선 제9대 성종대왕 재위 25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성종대왕실록’을 포함한 실록 10책, 왕실 유물 17점 등 총 67점의 유물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는 일제에 의해 약탈됐다 환수된 실록과 의궤가 광복 70년을 기념해 원 소장처인 강원도에서 개최됨은 물론 강원도민에게

첫선을 보인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자리다. 특히 특별전이 열린 강릉은 조선 시대에 오대산 사고를 관할하던 곳으로 역사적 연구성을 지니고 있으며,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 도시이기도 하다.

문화재청과 강원도는 이번 전시회가 문화유산의 홍보·활용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상호교류가 더욱 활성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문화올림픽의 실현에 있어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대표적인 문화콘텐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나갈 계획이다.☞



전시장 모습